

강화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정수진*

<目次>

- | | |
|----------------|-----------------------|
| I. 서론 | III. 강화 외포리 색채시범사업 현황 |
|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 대상지 현황 |
| 2. 연구의 범위 | 2. 사업추진과정 |
| 3. 선행연구 고찰 | 3. 주요사업내용 |
| II. 사례조사 | IV. 사업추진과정 분석 및 평가 |
| 1. 국내사례 | 1. 사업추진과정의 주요쟁점 |
| 2. 해외사례 | 2. 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
| | V. 결론 및 제언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환경 색채를 활용한 경관사업은 도시환경정비의 효율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디자인사업이나 경관사업은 10여 개 이상이며, 특화가로 조성, 야간경관 조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색채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도 전문성이 높고, 취향 등의 다양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도시구조물의 정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의 「희망마을프로젝트」 등 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벽화그리기 지원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전국 각처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의 유행을 가져왔다. 그러나 벽화사업의 결과로 마을환경이 정비되고 방문객이 증가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마을의 소득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훼손되기가 쉽고, 비바람에 칠이 떨어져 나가는 등 지속적인 유지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前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관에서 주도한 사업일 경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자체에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강화도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벽화조성 사업이 아니라 색채라는 수단을 통하여 환경구성요소들을 재조합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색채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추진과정의 특수한 부분들을 도출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대상지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일대로 한정한다. 시간적 범위는 사업의 기획이 시작된 2009년부터 사업 준공이 이루어진 2012년 5월이며, 내용적 범위는 경관사업으로서의 본 사업의 특성이 가지는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내용, 행정적 절차, 주민협의, 설계내용과 변경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3.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환경색채의 측색 및 배색기준에 대한 연구, 환경색채의 실제 적용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환경색채의 실제적인 적용 및 활용에 관한 부분이며, 주로 도심지의 아파트 환경색채와 농·어촌 지역의 환경색채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한 농·어촌 지역의 환경색채사업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선 외(2012),¹⁾ 손화선·차철욱(2011),²⁾ 여화선 외(2010),³⁾ 이석현(2011)⁴⁾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환경색채개선을 위한 대상지에서의 측색기법, 주조색과 보조색 등 색채선정과 패턴도출을 통한 일련의 색채계획의 과정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색채계획의 구성요소와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 협의에 의한 내용 변경 등의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
- 1) 김현선 외 (2012), “자연경관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 환경색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 색채학회논문집 제25권 제4호.
 - 2) 손화선·차철욱(2011), “환경색채의 변화를 통해본 마을 이미지: 부산시 사하구 감천 2동 태극마을을 중심으로”. 인문컨텐츠.
 - 3) 여화선 외(2010), “농촌마을의 환경색채개선에 관한 연구: 경주시 농촌마을의 건축물 지붕색채를 중심으로” 디자인 지식저널.
 - 4) 이석현(2011), “풍토환경을 고려한 전원마을 환경색채계획 - 금천 전원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II. 사례조사

1. 국내사례

1) 기본방향의 설정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환경색채를 활용한 사례들 가운데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강화도 외포리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석모도를 오가는 터미널이 위치한 곳으로 주로 헛집이나 모텔 등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한 곳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에서 추진한 환경색채사업 및 경관사업의 사례를 조사했다.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창조도시국 산하의 도시경관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도시디자인 조례를 기반으로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색채 디자인계획은 부산의 대표 색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색채를 선정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시범사업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했다.

태극마을은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 -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의 사업대상지로서 송도 해수욕장 근거리에 접하여 있으며, 태극도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파스텔톤의 컬러로 마을의 전체적인 모습을 만들고 부분적으로는 회화적인 벽화를 통해 공간연출을 시도했다.

레고마을은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위치한 주택가로 ‘은행나무로 23번 길’ 전체 54세대다. 86년에 지어진 국민주택이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지붕색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은행나무축제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림 2〉 부산 태극마을



〈그림 1〉 부산 레고마을

*이들 마을은 사진 촬영 등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높은 지역의 명소이자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그림 3〉 포항 동빈부두



〈그림 4〉 여수 이순신광장

3) 포항시

포항시는 경상도 최대의 어시장인 죽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동빈부두까지 연결하는 약 1.3km 구간에 특화가로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자전거 도로, 데크를 설치하여 바다의 경관자원을 활용하고 어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했다.

4) 여수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별도의 경관 수립하고 특히 야간경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해양공원과 이순신 광장을 중심으로 장소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 조형물과 상징벽, 친수시설, 야간조명을 도입하였다.

2. 해외사례

1) 이탈리아 부라노 섬

부라노(Burano)는 베니스에서 7km 떨어진 섬으로 원래는 레이스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으나, 최근에는 파스텔톤으로 도색된 아름다운 건축물이 유명한 관광지로 마을을 관통하는 운하를 따라서 보는 건물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림 5〉 이탈리아 부라노



〈그림 6〉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보카프

2)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보카프

보카프(Bo-Kaap)는 케이프타운의 케이프 말레이어 민족이 거주하는 이슬람 지역으로 시각적으로 역동적인 건축물과 화려한 색채의 건물들이 입지한 지역이다. 네덜란드 통치시대의 말레이아인 노예와 이주민들이 18세기부터 거주해왔으며, 당시의 건축이 남아 있는 오래된 지역으로 모스크와 박물관이 있다.

III. 강화 외포리 색채시범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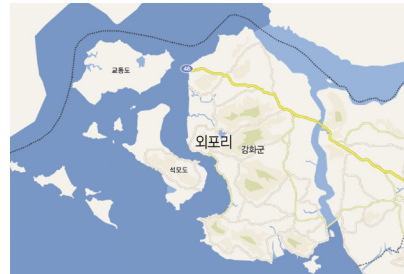
1. 대상지 현황

1) 개요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이나, 현재 관련 계획이 없는 상태로 대상지와 그 주변은 도시관리계획 상의 자연관리지역이며 동시에 여항구역이기도 하다.

외포리에는 석모도로 건너가는 여객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새우젓갈수산물시장이 있어 방문객이 많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또한 석모도와 연결되는 제3연륙교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터미널이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에 해당하며, 면적은 약 0.3km²로 총 세대수는 240세대, 537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업종은 수산물판매업(7.1%), 횃집(17.9%), 숙박업(8.5%), 일반요식업(23.8%), 서비스업(16.7%), 일반상점(15.5%), 기타이며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주민들은 주로 농업과 어업,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림 7〉 위치도

2. 사업추진과정

1) 인천광역시 색채기본계획의 수립

본 사업은 2008년 당시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이 강화군 현지 시찰 과정에서 외포리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브랜드의 강화 등을 위한 색채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색채기본계획 수립을 지시하면서 기획이 되었다. 공공디자인이나 경관사업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강화군 외포리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석모도와 연결되는 제3연륙교 건설 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투영된 부분이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맞은편의 석모도에서 바로 육안으로 조망이 가능하여 전체적인 마을 경관을 정비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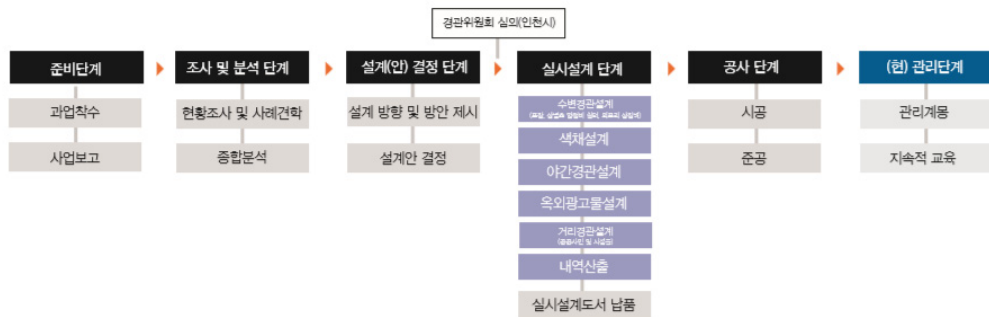
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색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 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색채기본계획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환경색채 부분 전반에 걸친 색채가이드라인으로 도심지역의 공동주거 및 주요시설물의 색채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다른 한 축은 브랜드색채계획으로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8가지의 색상을 선정하고 그 색상을 통하여 색채시범사업 등 특별히 색채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세 번째 부분은 색채시범사업으로 외포리 지역 외에는 인천항만과 같은 항구지역의 냉동 창고 등 대형 시설물의 색채조정을 통한 환경정비를 제한하는 내용과 동구 송림동 배구경기장 주변의 공단지역, 서부산업단지 등 공단의 환경정비를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는 항만이나 공업지역과 같은 기능이 중요시 되는 지역의 효율적인 환경정비 수단으로 색채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색채시범사업의 추진

강화도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인천광역시 색채기본계획이 중간보고회를 마친 직후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도 사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최초의 사업 내용은 항만과 포구를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과 주거지역의 지붕과 담장 등을 포함하여 색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을 명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건물의 외벽도색은 건물소유주 및 세입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외포리의 경우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한 결과, 옥외광고물을 사업내용에 추가했다.⁵⁾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주민부담금을 전체비용의 10%



〈그림 8〉 사업추진과정

- 5) 옥외광고물을 사업내용에 추가한 이유는 첫째, 기존의 옥외광고물들이 대부분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재부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외포리의 경우 중심가도가 상업가로였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을 조정하지 않으면 색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사업추진과

로 책정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100% 시와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3) 행정적 절차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강화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절차를 밟았으며, 10개 업체가 응모하였고, 심사결과 (주)이음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당선되었다. 당시 우려되었던 점은 설계 공모 안에서 (주)이음파트너스에서는 것갈시장의 광장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제안을 하고 색채설계 내용은 부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었다. 그 주요내용은 협상에 의해 조정되었으며, 추후 그림 8과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조정되었다.6)

사업초기단계에서 강화군과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와 함께 주요사례지역을 답사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꾸준히 주민과 접촉하였다. 이는 추후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유지되어 사업 준공 때까지 유지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공공디자인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기본계획이나 설계가 확정 된 이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인천시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의거 각종 경관계획 및 사업에 대한 심의 외에도 주요 경관관련 사업들에 대해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내부방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9〉 마스터플랜

정에서 모델업주와의 협의가 실패로 끝난 점이 아쉬운 점이다.

6) 이러한 사업조정내용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특수한 부분으로 제4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3. 주요사업내용

1) 마스터플랜의 수립 및 변경

강화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업추진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상태였으나, 초기 협상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조정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인천광역시 예산조정에 따른 사업 내용변경, 주민협의 등의 과정을 걸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

2) 수변경관계획



〈그림 10〉 수변경관계획

당초 기획단계에는 없었던 수변광장 및 삼별초 항쟁 기념비 주변 쉼터가 추가되었다. 수변광장은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쉬면서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젓갈 수산시장 이용 차량의 (주차문제)를 염려한 (어촌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아스콘 포장 및 상징벽 조성으로 마무리되었다.

3) 색채계획



〈그림 11〉 색채계획

색채계획은 상위계획인 「인천광역시 색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강화권역의 색채가이드라인을 조합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일부 구간에 벽화 도입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어촌마을의 환경적 특성, 지역주민 의견 및 경관위원회 심의 의견 등에 의하여 따뜻한 흰색(Warm White)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선정하여 환경색채계획을 수립하고 벽화와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유지관리의 경제성은 유용하였다.

4) 야간경관계획



〈그림 12〉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은 초기에는 석축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조명을 계획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유지관리 등 문제로 수량이 축소되었다. 해안도로와 석모도에서의 경관축을 고려하여 도면에 표시된 선착장 주변에만 석축조명이 설치되었다. 기본적인 시설물의 디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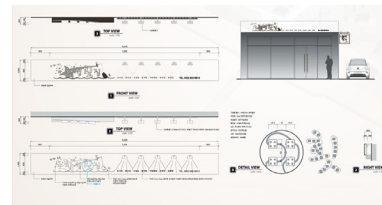
거리경관에서 사용한 가로등 디자인이 도입되었으며, 석축주변 등 일부 구간에는 해안경관을 고려하여 돛대모티프를 가져온 디자인의 가로등이 별도로 설치되었다.

5) 옥외광고물계획

옥외광고물 계획은 법에 의해 정해진 광고물 외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되었다.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포구를 뒤덮던 고채도, 고대비 광고물을 각 업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외포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심의 가로경관 중심으로 유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경관 형성을 위한 특색 있는 로고를 사용하고 이용자 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했다. 그 결과 가로형 간판 53개, 문자형간판 3개, 돌출형 간판 58개, 총 58개소의 옥외광고물을 교체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추가 광고물 교체 요구가 발생할 정도로, 마을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다.



〈그림 13〉 옥외광고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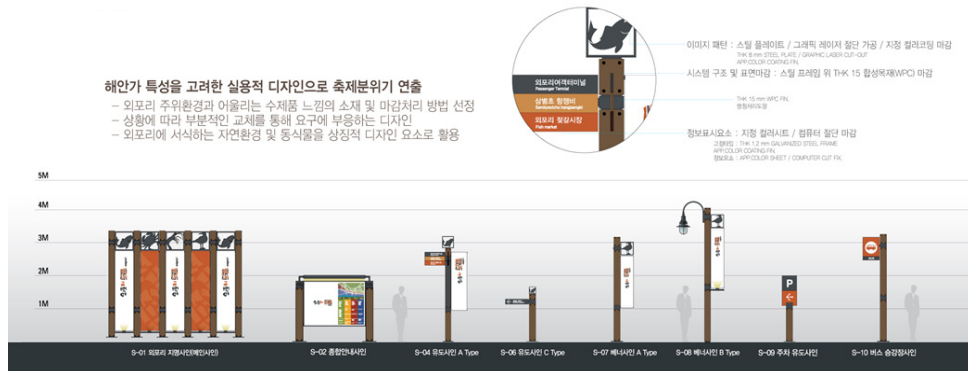
〈그림 14〉 옥외광고물 실시설계도

6) 거리경관계획

거리경관은 해안가 특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축제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포리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해풍에 부식되지 않도록 소재를 선정하고 외포리에 서식하는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상징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도입된 시설물은 지명사인 3개소, 종합안내사인 4개소, 유적지 설명사인 2개소, 유도사인 9개소, 버스승강장 사인 1개소, 주차유도사인 2개소, 공공화장실 사인 3개소가 설치되었다. 추후 추진예정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정구간에는 조명형 배너사인 설치를 유보하고 추후 가로조성공사가 실시될 경우에 설치하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주요지점에 일관된 안내사인물로 인해 효과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외포리의 입구 정체성을 부여했다.



〈그림 15〉 거리경관계획



〈그림 16〉 가로시설물

IV. 사업추진과정의 분석 및 평가

1. 사업추진과정의 주요쟁점

1) 마스터플랜의 변경

강화도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천을 대표하는 항만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색채경관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검토해보면 단계적인 추진절차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제안단계, 조정단계, 준공단계에서 각각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기본계획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갯벌이나 노을색을 적용한 Y계열의 밝고 부드러운 색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지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특화색채를 활용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색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그러나 사업제안공모단계에서 채택된 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위계획과는 별개로 외포리 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이러한 통합마스터플랜에 근거하여 색채, 야간경관,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이한 제안이 당선된 것은 공모 심사시스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⁸⁾ 그 결과 외포리 브랜드화 전략에 주력을 기울인 디자인안이 당선되었다.

당선된 안의 계획 내용은 이미 확보된 예산범위에 적합하도록 1차 수정되었으며, 주민협의체와의 협의과정 및 강화군청내부보고, 인천시청 도시디자인추진단 보고 등의 행정적인 절차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기본계획, 시범사업상세계획보고서, p. 22.

8)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전행정부(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했던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을 중심으로 수차례 제기되었다. 가격이 우선되는 기존의 평가시스템에 의해 디자인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체결방식 전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17〉 제안단계의 마스터플랜 및 조감도



〈그림 18〉 사업조정단계의 마스터플랜



〈그림 19〉 완료단계

를 통해 2차로 변경되었다. 또한 경관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기존의 YR위주의 주조색상을 N계통의 흰색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색채계획 조정 외에도 수차례 현장점검 결과 외포리 젓갈수산물시장 측면에 위치한 주차장을 광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계획·수정되었다.

이후 이러한 설계수정안에 대해서 어촌계의 반발이 발생했다. 수변광장 공간의 주차면적 감소에 대한 저항, 젓갈수산물시장 외벽 디자인 반영 불가 등의 주민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광장부분은 아스콘으로 바닥을 재포장하고, 상징벽을 설치하고 삼별초 항쟁비 주변을 토타로 재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2) 주민협의

강화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경관조성 후 관리 운영 주체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추후 경관협정 체결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젓갈수산주변 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사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주체를 어떻게 설정하는 가에 대한 부분들이 쟁점사안이 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변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협의체와는 별도로 어촌계와 3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아스콘포장 및 상징벽 조성을 완료하고 기존의 안내게시물 및 안전펜스를 이전시켰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업공간을 정비했으며, 불법적치물을 정리했다.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간판의 이동은 제한하고, 영업소 이전 등 간판이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에 사전보고하며, 건물도장의 경우, 건물 증·개축 시에는 군에 신고를 하도록 약정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완료했다.

3) 경관사업의 법적 지위 검토

강화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경관법 제6조에 의해 수립된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추진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경관사업의 법적 정의⁹⁾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검토해보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지역지구지정권한이 없으며, 해당 지역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이 부재한 자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지구지정 등 구역계 설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세부 지침 등 관련 계획을 보완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화 외포리 경관사업 구역계를 결정했다.

이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사업 추진 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관계획과 기본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의 위계 및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관리시스템과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혹은 경관지구 지정 이후에 경관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경관계획 수립 지구 내에서 경관사업이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9)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경관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추후 경관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2. 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1) 조화롭고 일관된 마을경관 형성

지역의 인상을 좌우하는 상업밀집지역의 외부 벽면을 도장을 통해서 정비하기 위해 시원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흰색(White)을 주조색으로 선정하고, 지붕색채는 지역색채를 활용하여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을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또한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 및 업종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별 디자인컨설팅 및 유지관리서약을 진행하여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지역의 공간인지 및 식별을 위한 체계적으로 안내사인을 설치하고, 해안가 석축에 조명을 추가하여 해안가의 어둡고 산만한 야간경관을 정비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광고물 철거, 광장조성 불가 등의 문제로 반대를 하던 주민들은 과정에서 달라지는 마을의 모습에 대해 반응을 하기 시작했으며, 사업조성 이후에는 추가 광고물 정비, 광장조성 등을 요구하는 등 사업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¹⁰⁾

〈표 1〉 사업의 성과

구분	사업 전	사업 후	비고
마을경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정비 • 건축물 외벽 색채계획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벽면 보수 및 도장
수변경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 포장 • 안전펜스 교체 • 가로등 교체

2) 수변경관 형성

기존 젓갈수산지 주차장의 노후 콘크리트 바닥포장을 아스콘으로 교체하고 상징적인 역사문화공간인 삼별초 항쟁비 주변을 정비했다. 기존의 젓갈시장 주변 주차장은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단차가 있고, 파손되어 있었으며, 쉼터가 없어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새우, 물고기 등 마을 상징물을 모티브로 한 패턴을 도입하여 아스콘으로 포장하였으며, 외포리 상징벽을 설치하여 앉아서 쉴 수도 있도록 했다. 바다를 가리던 어항구역안내시설물, 펜스 등을 철거하여 바다를 향한 경관을 열어주었다. 주차장도 라인이 아니라 포인트만 표시하는 형식을 도입하여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강조해주었다. 그 결과 사업 추진 단계에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외포리 젓갈수산지 어촌계에서도 사업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강화군 외포리 색채시범사업은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인 색채디자인기본계획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기획이 되어 추진되었다. 경관사업으로서 색채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행정적 절차, 주민 협의 등의 절차와 과정에서 설계안의 변경이 발생하고, 특히 주민참여나 협의, 협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관법의 체계 안에서 구역계의 결정 등을 국토관리시스템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마을 전체의 경관을 조정하고, 환경정비의 효과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종 절차를 통한 합의과정을 디자인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족하는 디자인을 실현할 때, 지속성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고 시행령, 관계 지침 등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경관사업추진절차가 기존 국토관리시스템과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경관사업추진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10) 사업추진과정에서 반대로 인한 물량축소로 발생한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 광고물설치, 광장공사 등을 건의하여 검토하였으나 예산집행절차상의 문제로 추가사업은 진행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 강화군(2012), 강화군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 종합보고서 및 실시설계도서.
- 김현선 외(2012), “자연경관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 환경색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6권 4호.
- 손화선·차철욱(2011), “환경색채의 변화를 통해본 마을이미지: 부산시 사하구 감천 2동 태극마을을 중심으로”, 인문컨텐츠.
- 여화선 외(2010), “농촌마을의 환경색채개선에 관한 연구: 경주시 농촌마을의 건축물 지붕색채를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 이석현(2010), “서해안 경관을 고려한 수변아파트 환경색채평가: 시흥시를 중심으로”, 디자인학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제23권 제5호 통권 91호.
- _____ (2011), “풍토환경을 고려한 전원마을 환경색채계획 - 금천 전원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5권 제2호.
- 인천광역시(2010),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 _____ (2010),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기본계획.